



2학년 및 3학년 학생 대상 소변검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및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북보건협회에서 본교를 방문하여 학생 소변검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만성신장질환은 국내 3대 만성질환의 하나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변검사는 신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학생들이 검사일에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 일시 :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5-6교시)

2. 검사 대상 : 2학년, 3학년

3. 검사 비용 : 무료

4. 집단 요검사 시 검사항목: 요단백, 요당, 요잠혈, pH

5. 검사 시 주의사항

- 1) 검사 전일 및 당일 **당분이 많은 야채나 과일, 비타민 C를 먹지 않도록** 합니다.
- 2) 검사 전일에 **지나치게 운동을 하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단백 위양성 가능)
- 3) 검사 당일 1시간 전부터 검사를 할 때까지 소변을 참도록 합니다.
- 4) 검사지(종이막대)의 색지부분을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물) 등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 5) **소변을 보다가 중간소변을 검사지의 색지에 묻힌 후 검사하는 선생님께 보여 드립니다.**
- 6) 여학생의 경우 생리 종이거나, 생리 전후 일인 경우 소변검사 담당자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 7) 검사결과 처리: **재검사 결과 이상소견 학생**은 병원을 방문하여 재검사/정밀검사를 받고 **검사회신문을 보건실로 제출**합니다.

소변검사의 중요성

-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신장은 노폐물 제거, 적혈구 생산의 조절과 골 형성, 혈압은 물론 전해질 및 수분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로 한번 손상된 세포는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신장손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각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신장질환은 상당히 진행되어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각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은 때에는 이미 신장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 약물 요법이나 식이 요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고 투석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신부전은 투석이나 이식 등의 치료 외에 약물 요법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약물요법, 식이요법 및 보조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2021.04.21.

군산월명중학교장